



동아시아고대학
제72집

ISSN : 1229-8298(Print)

평양과 발해만 북부 갈석산 비정의 문제점 - 진·한(秦·漢) 시기 발해(渤海)와 요동(遼東)의 위치를 중심으로 -

이기훈

To cite this article : 이기훈 (2023) 평양과 발해만 북부 갈석산 비정의 문제점 - 진·한(秦·漢) 시기 발해(渤海)와 요동(遼東)의 위치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고대학, 72, 109-150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평양과 발해만 북부 갈석산 비정의 문제점

- 진·한(秦·漢) 시기 발해(渤海)와 요동(遼東)의 위치를 중심으로 -

이기훈*

目次

- I. 머리말
- II. 낙랑(樂浪) 수성현(遂城縣) 갈석산 평양설의 문제점
- III. 발해만 북부 갈석산 설(說)의 문제점
- IV. 맺음말

【국문초록】

갈석산(碣石山)은 고대 중국과 고조선의 국경에 위치했던 표지로서 현재 학자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한반도 평양 서남부의 용강설과 하북성 진황도시 창려현을 비롯한 발해만 북부 4개의 갈석산설은 중국에서 진(秦)·한(漢) 시기 유력한 갈석산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원전문헌의 여러 기록들과 불합치되는 곳에 위치해 있음이 확인된다.

갈석산이 있다는 수성현(遂城縣) 관련 내용을 처음 언급한 『태강지리지(太康地理志)』의 기록은 원본이 소실되어 확인이 어려운데, 후대 당(唐) 사가(史家)들이 ‘조선 낙랑군’에 속한 수성현, 또는 ‘고기주(古冀州) 상곡군’에 속한 수성현으로 서로 다르게 인용하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낙랑군(평양)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었는지 신뢰하기 어렵고, 진(秦)·한(漢) 당시의 여러 문헌상 갈석산 관련 내용이 한반도 상황과 맞지 않으며, 갈석산이 초기에 황하(河) 인근에 있었음을 전하는 여러 기사들도 한반도와 위치상 맞지 않으므로 평양(용

*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박사과정

강) 갈석산설은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창려현을 비롯한 발해만 북부 갈석산설들의 경우, 갈석산과 함께 전국시대 연(戰國燕)나라의 국경을 규정짓는 지표였던 발해(勃海)가 진(秦)·한(漢)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하북성 남부로 비정되는 사실과, 진(秦) 장성의 동단(東端)이자 갈석산이 있었다는 요동(遼東)의 위치 역시 현재와 달랐다는 문제점이 있다. 요동(遼東)은 전국시기 이후 연(燕), 제(齊), 조(趙)가 공유했었던 곳이었고, 후한(後漢) 당시 요동 인근의 요하(遼河)는 현재와 달리 동쪽으로 곧게 흘렀다. 서진(西晉) 이전 요동에 속했던 창려(昌黎)는 현 북경보다 남쪽에 있었고, 후한 요동태수 공손도의 근거지였던 요동군 치소 양평(襄平)은 현 하북성 남부와 하남성 북부를 가로지르는 장수(漳水)로 유입되던 양수(梁水) 인근에 있었다.

진(秦) 당시 흉노와 예맥조선의 경계였던 상곡(上谷)을 중국에서 하북성 중부(保定市, 張家口市)로 비정하고 있는데, 진(秦)장성의 종점인 요동의 기준이 되는 요주(遼州)가 이 상곡 남부인 하북성 진중시 좌권현에 근대까지(1912년) 있었고, 진시황 당시 황하 북쪽과 동쪽에는 흉노(匈奴)와 동호(東胡), 예맥조선이 건재하였으므로 진시황이 쌓은 장성이 동쪽으로 현 북경 동쪽 바다(발해)에 이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요동은 현재와 달리 하북성 중남부에 있었고, 이 요동에 있었다는 진장성(秦長城)의 동단과 갈석산 역시 이 인근에 위치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갈석산을 경계로 삼았던 연(燕)나라의 수도 계(薊)와 연에 속했던 어양(漁陽)이 유주(幽州, 현 북경일대)로 이동된 시기는 당(唐)나라 시기로, 이렇게 유주(북경 인근)로 이주 된 연나라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의 발해만 북부에 비정되는 갈석산이 문헌상 맞지 않는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갈석산과 관련된 발해와 요동, 진장성(秦長城), 연(燕)의 위치가 진(秦)·한(漢) 시기에 현재와 다른 곳에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현재의 발해와 요동, 진장성, 연(燕)을 기준으로 비정되고 있는 발해만 북부 갈석산들은 고대 관련 기록과 맞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갈석산(碣石山), 고조선, 낙랑(樂浪), 수성현, 발해(渤海), 요동(遼東), 진장성(秦長城)

I. 머리말

갈석(碣石) 또는 갈석산(碣石山)은 고대 중국의 영역을 구분하는 표지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진(秦)·한(漢)의 동쪽 경계를 한반도 일대까지 비정하는 근거로도 사용된다.¹⁾ 따라서 진(秦)·한(漢)시기 갈석산 위치를 정확히 비정하는 것은 당시 고조선의 영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다.

갈석(碣石)은 전국시대 연(燕)의 국경 지역에 있었는데,²⁾ 이후 시대에 따라, 학자에 따라 비정되는 곳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갈석산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전국(戰國)시기 말부터 진(秦)·한(漢) 시기까지의 갈석산에 초점을 두고 중국의 사서(史書)들에 등장하는 갈석산 관련 표지인 수성현(遂城縣), 발해(渤海), 요동(遼東), 진장성(秦長城) 등의 위치를 분석하여, 현재 진(秦)·한(漢) 시기 갈석산 위치로 주장되고 있는 평양(용강)과 진황도시 인근(발해만 북부) 갈석산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갈석산 위치와 관련된 주장들

중국 학계에서 주장하는 갈석(碣石)의 위치로는 한반도 평양 서남부인 평안남도 용강군(龍岡郡)에 대한 설(이하 평양설로 칭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발해만 북쪽의 4곳인 하북성 진황도시(秦皇島市) 창려현(昌黎縣), 당산시(唐山市)의 낙정현(樂亭縣), 호로도시(葫蘆島市) 수중현(綏中縣), 진황도시(秦皇島市) 북대하구(北戴河區) 금산취(金山嘴) 역시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있다. 그 밖에도 소수 의견으로 산둥성 빈주시(濱州市) 무체현(無棣縣)의 갈석산에 대한 논의가 있다.³⁾

1) 李殿福, 『東北境內燕, 秦長城考』, 『黑龍江文物叢刊』, 1982, p.62.

2) 『戰國策』 「燕策」 “北說燕文侯曰：燕東有朝鮮，遼東，… 南有碣石，雁門之饒。”
『史記』 卷一百二十九 “夫燕亦勃，碣之間(正義勃海，碣石在西北)一都會也”

3) 任乃宏, 『“碣石”新考』, 『文物春秋』 2, 河北 邯鄲, 邯鄲學院 趙文化研究中心, 2014, pp.14~19.

한국 학계에서는 기존 갈석(碣石)에 관한 연구가 주로 낙랑(樂浪)과 관련하여 한반도 현 평양지역, 하북성 진황도시 창려현(昌黎縣) 갈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⁴⁾, 그밖에 하북성 보정시 내원현 백석산(河北省 保定市 涞源縣 白石山), 산둥성 빈주시 무채현 갈석산(山東省 濱州市 無棣縣 碣石山), 하북성 석가장시 고성구 구문 무차산(河北省 石家莊市 藁城區 九門 無此山) 등의 설과,⁵⁾ 하남성 정주시(鄭州市)에 북쪽 황하 연안에 위치한 광무산(廣武山, 前 三皇山)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⁶⁾

2. 평양과 발해만 북부 갈석산설의 선행연구와 문제점

평양 갈석산설은 갈석산이 있었다는 진(秦) 장성의 동단에 대해 일본인 학자인 稻葉岩吉(도엽암길)이 1910년 처음 평양 남부에 비정하고, 중국학자 王國良(왕국량) 역시 진(秦) 장성을 한반도로 비정하면서 시작된다.⁷⁾ 중국 학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982년 李殿福(이전복)이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서쪽으로 연(燕)나라 도폐(명도전)와 철기, 진(秦)대 무기(秦戈)가 발견되는 점을 근거로 진(秦) 장성 동단을 평양 남부(용강군)에 비정하였고, 1995년 閻忠(염충) 역시 이에 동의하게 된다.⁸⁾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진(秦) 장성을 평양부근까지 연결시키고 있으며 갈석산 역시 이곳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공석구, 「秦 長城 東端인 樂浪郡 遼城縣의 위치문제」, 『한국고대사연구』 81, 2016, 221~232쪽.

5) 장우순·문치웅, 「고대 갈석산의 위치 연구」, 『고조선단군학』 38, 2018, 162쪽.

6) 김진경, 「갈석산(碣石山)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선도문화』 15, 2013, 323쪽.

7) 앞의 논문 공석구, 2016 참조.

8) 앞의 논문 任乃宏, 2014 참조.



<그림 01>9) 진(秦) 시기 전국 지도(秦時期全圖). 진(秦)의 영토가
진장성 동단(낙랑 수성현)으로 주장되는 평양인근까지 연결시키고 있다.

창려현(昌黎縣)을 중심으로 한 발해만 북부 4개 갈석산설들이 고대 갈석산이라는 주장(이하 발해만북부설이라 칭함)은 중국 역사지리학 분야의 창시자이자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는 담기양(譚其驤, 1911~1992)이 1976년 상해 복단대학(復旦大學)에서 『갈석고(碣石考)』를 발표하여 ‘고대 갈석산은 현재의 갈석산’이며, 모든 역대 갈석산이 창려성(昌黎城) 북쪽의 선대정(仙臺頂)이었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담기양은 논문 서두에 당시 중국의 절대권력자인 모택동(毛澤東, 1893~1976) 주석이 쓴 『낭도사 북대하(浪淘沙 北戴河)』라는 글의 “과거로부터 수천년이 흘렀으나, 위무제(魏武帝, 조조)가 채찍을 휘둘러 동쪽 갈석산에 방문했던 시문이 남아있다(往事越千年, 魏武揮鞭, 東臨碣石有遺篇).”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담기양이 모택동의 글을 서두에 소개한 것은 그의 논문에 모택동의 글을 증명

9) 譚其驤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二冊(1)(秦圖組), 中國地圖出版社, 1996.

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담기양(譚其驤)은 모택동이 언급한 갈석산을 찾기 위해 기존 청대(清代) 학자들의 갈석산과 관련된 연구의 문제점, 즉 ‘갈석산이 바다 가운데 침몰했다는 주장(碣石淪海說)’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갈석산이 해변(발해)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내륙에 있었음을 역대 기록과 기후변동을 통해 주장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모택동이 글 제목으로 언급한 북대하(北戴河) 인근, 즉 ‘현재의 발해’ 북쪽 약 15Km 내륙에 있는 창려현(昌黎縣) 북쪽의 갈석산이 위(魏)나라 조조와 진시황, 한무제가 오른 갈석산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는 논문 마지막에 “이는 나의 갈석산 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탐색의 결과로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에 관심있는 동지들이 많이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한다(這是我對碣石問題所作初步探索得出的結論, 不一定正確, 希望關心這個問題的同志們多多予以指正).”라고 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¹⁰⁾

이렇게 1976년 담기양에 의해 현 발해만 북부 창려현 갈석산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갈석산이라고 주장된 이후 1979년 중국과학원 역사지리학자인 황성장(黃盛璋)은 담기양의 의견에 이의를 제시하며 갈석산이 내륙의 산이 아니라 바위이며 구체적 위치는 진황도시(秦皇島市) 북대하(北戴河) 금산취(金山嘴)라고 주장하면서 발해만 북쪽 갈석산의 위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다.¹¹⁾ 이후 인근에 있는 낙정현(樂亭縣), 수중현(綏中縣) 갈석산설이 추가로 주장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현재 발해만 북부 갈석산설로 주장되는 네 곳인 창려현(昌黎縣), 금산취(金山嘴), 낙정현(樂亭縣), 수중현(綏中縣)을 두고 2014년 임내굉(任乃宏)은 담기양이 주장한 창려현의 갈석산만을 오류가 없는 고대 갈석산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3곳은 부정하기도 하였다.¹²⁾

10) 앞의 논문 譚其驤, 1987 참조.

11) 黃盛璋, 『碣石考辨』, 『文史哲』 6, 1979, pp.34~35.

12) 앞의 논문 任乃宏, 2014 참조.

[illegible]

14) ‘<표 01> 갈석산(碣石山)이 河(황하) 인근임을 전하는 기록’ 참조.



<그림 02> 고대 황하(黄河) 하도(河道) 변화도(상)¹⁵⁾와 황하 하류 하도(河道) 변천 상세도(하).¹⁶⁾ 한반도 뿐 아니라 발해만 북부 갈석산 비정지들(그림들의 右上 지역)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의 황하와 관련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1982년 중국의 이전복(李殿福)이 주장한 평안남도 용강군 서쪽으로 연(燕)나라 도폐(명도전)와 철기, 진대 무기(秦戈)가 발견되었으므로 진(秦)장성 동단이 평양 인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도전이 전국시대 연나라 화폐인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¹⁷⁾ 진(秦) 유물이 한반도 북부에

15) Pauline SEBILLAUD(史宝琳), 『中原地區公元前三千紀下半葉和公元前兩千紀的聚落分布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p.436.(부록76).

16)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黄河故道(2023.11.01.접속)

17) 張博泉, 『明刀幣研究續說』, 『北方文物』 80, 2004, p.51. “『漢書·地理志』記載: ‘相盜者,男沒人爲其家奴,女子爲婢,欲自贖者人五十萬。’ 此以五十萬計的當是貨幣, …在朝鮮侯國當時通行的貨幣,應當是以明字爲面文的刀幣.(『한서 지리지』에 ‘도독질한 자가 남자이면 노예로 삼고, 여자이면 첩으로 삼으며, 속죄하려는 자는 50만을 내야한다.’는 기록의 ‘50만’은 당연히

서 발견되는 사실이 진(秦)의 점령에 의한 유물인지, 아니면 마한(馬韓) 동쪽에 정착해 살았다는 진(秦) 유민들이 남긴 진한(辰韓, 秦韓)¹⁸⁾의 유물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 진(秦) 유민이 한반도 남부 진한(辰韓)으로 이주했다면 그곳에 진(秦) 관련 유물이 남아 있어야 하나 현재 한반도 남부에서는 북부와 달리 진(秦)계 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¹⁹⁾ 따라서, 진(秦) 유민이 살았다는 진한(辰韓, 秦韓)이 한반도 동남부에 국한된다는 일반적인 학설 역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평양설과 발해만북부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 갈석산을 찾는 공통된 기준인 ‘발해(渤海)’와 ‘요동(遼東)’이 과연 진(秦)·한(漢) 당시에도 현재의 발해와 현재의 요동이었는지에 대한 원전문헌을 통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 주장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내포한 ‘진(秦)·한(漢) 시기 갈석산이 평양이나 발해만 북부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진(秦)·한(漢) 시기와 관련된 기록들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양(용강)과 발해만 북부 갈석산이 진(秦)·한(漢) 시기 갈석산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II. 낙랑(樂浪) 수성현(遂城縣) 갈석산 평양설의 문제점

1. 『태강지리지』 기록의 문제점

낙랑군(樂浪郡) 수성현(遂城縣)에서 진(秦)장성이 시작된다는 내용을 처음 언급한 『태강지리지(太康地理志)』는 서진(西晉) 태강 3년(282)에 편찬되

화폐이다.…조선후국(朝鮮侯國)에서 당시 통용된 화폐는 마땅히 명(明)자가 새겨진 화폐(명도전)이다.”

18) 『後漢書』東夷列傳 韓 “辰韓, 耆老自言秦之亡人, 避苦役, 適韓國, 馬韓割東界地與之.”

19) 오현수, 『古朝鮮의 形成과 變遷過程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013, 182쪽.

었다고 하나 그 원본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 『태강지리지』의 낙랑군(樂浪郡) 수성현(遂城縣) 내용을 인용한 『진서(晉書)』, 『사기색은(史記索隱)』의 편찬 시기가 진(晉) 태강연간(280~289) 이후 300여 년 이상 지난 당대(唐代)라는 점, 그 사이 낙랑군(樂浪郡)의 위치 변동이 이루어졌던 점²⁰⁾을 감안할 때 당(唐)나라 당시 낙랑군 수성현을 원(原) 낙랑군 수성현 위치로 비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공석구가 지적했듯이 상기 세 권의 사서 이외에 『태강지리지(太康地理志)』를 인용한 5세기 초 배송지(裴松之) 주(注) 『삼국지(三國志)』 등 여러 사서들을 분석하면 태강 3년(282) 편찬 당시 내용이 아닌 태강 7년(286), 진무제(晉武帝, 236~290년) 이후 즉 290년 이후, 진원제(晉元帝, 재위 318~323) 시기, 북위(北魏) 시기(386년 이후), 동진(東晉) 태원(太元) 15년(390) 상황이 등장하는데, 이는 낙랑 수성현(遂城縣) 관련 『태강지리지(太康地理志)』 내용을 인용한 상기 『진서(晉書)』, 『사기색은(史記索隱)』 역시 진(晉) 태강 3년(282)의 실제 지리적 상황이 아닌 후대에 추가되거나 개편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나아가 진(秦)장성이 낙랑군(평양)까지 연결되었다고 파악한 견해에 의문을 제시하게 만든다.²¹⁾

20) 『資治通鑒』卷第八十八 “孝懷皇帝下建興元年(癸酉, 313年)…遼東張統據樂浪, 帶方二郡, 與高句麗王乙弗利相攻, 連年不解. 樂浪王遵說統帥其民千餘家歸虜, 虜爲之置樂浪郡, 以統爲太守, 遵參軍事.”

『隋書』卷三十 “遂城舊曰武遂. 後魏(北魏, 386~534)置南營州, 准營州置五郡十一縣(북위에서 남영주를 설치하고 영주 전체에 5군11현을 두었다): 龍城, 廣興, 定荒屬昌黎郡; …襄平, 新昌屬遼東郡; 永樂屬樂浪郡((남영주의) 영락은 낙랑군에 속한다); 富平, 帶方, 永安屬營丘郡. 後齊唯留昌黎一郡, 領永樂(북제는 창려 1군만 남기고 영락을 다스리게 했다.) 新昌二縣, 餘並省. 開皇元年(581)州移, 三年郡廢, 十八年(598)改爲遂城((수나라) 개황원년에 ‘州’를 ‘州’로 바꾸었다가 3년 폐하였고, 18년에 수성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有龍山. 永樂舊曰北平, 後周改名焉.”

21) 앞의 논문 공석구, 2016, 240~242쪽 참조.

2. 수성(遂城)과 관련된 당(唐)대 사서 기록 간의 불일치

갈석(碣石)이 있었다는 수성(遂城)과 관련하여 『태강지리지』의 원본 내용을 인용한 당(唐)대 사서들²²⁾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서(晉書)』 卷十四 志第四 地理上

“樂浪郡(漢置. 統縣六, 戶三千七百), 朝鮮(周封箕子地), 屯有, 渾彌, 遂城(秦築長城之所起).” (낙랑군(한이 설치하였다. 현이 6개이고 호가 3,700이다), 조선(주나라 기자가 봉한 곳이다), 둔유, 혼미, 수성(진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

『사기색은(史記索隱)』 卷二 夏本紀第二

“鳥夷皮服, 夾右碣石, 入于海(太康地理志云, 樂浪遂城縣有碣石山, 長城所起).”(조이가 가죽옷을 입고 갈석을 오른쪽에 끼고 바다에 들어간다(『태강지리지』에 낙랑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한다.))

『통전(通典)』 卷第一百七十八 州郡八

“古冀州上(今置郡府二十二, 縣一百二十七)…上谷(易)八縣(易, 遂城, 洹水, 容城, 滏城, 五迴, 樓亭, 阪城)…上谷郡…遂城(古武遂也, 秦築長城之所起)…北平郡…盧龍(漢肥如縣. 有碣石山, 碣然而立在海旁, 故名之. 晉太康地志同(『太平寰宇記』에는 云)秦築長城所起自碣石在今高麗舊界非此碣石也).”(옛 기주 상(현제 22개 군부가 있고 1백27개 현이 있다)…상곡군 8현(역, 수성, 가수, 용성, 봉성, 오회, 누정, 판성)…상곡군…수성현(옛 무수현이다. 진이 쌓은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북평군…노룡현(한의 비여현이다. 갈석산이 있는데 선돌(갈)과 같이 해변에 서 있어서 (갈석이라고) 이름하였다. 『진태강지리지』에서 진이 쌓은 장성이 시작된다는 갈석은 오늘날 고려의 옛 경계에 있는 이 갈석과 다르다.))

상기 『진서(晉書)』의 “秦築長城之所起(진(秦)이 쌓은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라는 내용은 3세기 『진서(晉書)』 원본에 있는 ‘수성(遂城)’에 7세기

22) 『晉書』: 당(唐) 방현령(房玄齡, 579~648) 등 저; 『史記索隱』: 당(唐) 사마정(司馬貞, 8세기) 저; 『通典』: 당(唐) 두우(杜佑)가 801년 완성

당(唐)의 방현령(房玄齡) 등이 주석을 달아 놓은 내용으로, 같은 당대(唐代)에 저술된 『통전(通典)』에서 『진태강지지(晉太康地志)』, 즉 『태강지리지』를 인용해 기록한 “秦築長城之所起” 또는 “秦築長城所起”와 문구가 같은 것으로 보아, 이 『진서(晉書)』 주석의 원전문헌이 『태강지리지(진태강지지)』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 나오는 “太康地理志云, 樂浪遂城縣有碣石山, 長城所起(『태강지리지』에 낙랑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한다.)”라는 내용 역시, 『사기(史記)』 원문인 “夾右碣石, 入于海(갈석을 오른쪽에 끼고 바다로 들어간다)”에 8세기 당(唐) 사마정(司馬貞) 등이 주석을 단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당(唐)시기에 주석이 추가된 『진서(晉書)』와 『사기색은(史記索隱)』의 수성현(遂城縣) 관련 내용이, 같은 당대(唐代)에 기록된 『통전(通典)』과 다르다. 『통전(通典)』에서는 『사기색은(史記索隱)』과 같이 『태강지리지(太康地理志)』 즉, 『진태강지지(晉太康地志)』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만, 『사기색은(史記索隱)』에 기록된 ‘낙랑군(樂浪郡)에 속한 수성현(遂城縣)’과 달리 ‘상곡군(上谷郡)에 속해 있는 수성현’을 설명하고 있다. 즉, 『사기색은(史記索隱)』과 동일한 『태강지리지(太康地理志)』를 인용하면서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통전(通典)』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록돼 있으므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통전(通典)』에 언급한 진(秦)의 장성(長城)이 시작되는 수성현(遂城縣)은 옛 기주(古冀州)에 속해 있는 상곡군(上谷郡) 8현(八縣) 중 하나로서, 조선의 낙랑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낙랑과 관련이 없는 옛 기주(古冀州)지역 상곡군(上谷郡)에 속해 있다고 한다. 이 수성현(遂城縣)은 과거 무수현(武遂縣)으로 불리던 곳으로 원래부터 수성현이 아니었는데, 그곳이 바로 진(秦) 당시 건설한 장성(長城)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이다. 즉, 진장성(秦長城)이 ‘낙랑군 수성현’과 관련이 없는 ‘무수현’에서 이름이 바뀐 ‘상곡군 수성현’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낙랑군 수성현’과 ‘상곡군 수성현’이 당나라 사가들 사이에서 혼동되어 인식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진서(晉書)』, 『사기색은(史記索隱)』 주석자들이 『태강지리지』에 등장하는 수성현(遂城縣)이 당나라 당시 ‘낙랑군’이 아니라 ‘상곡군’에 속한 사실을 무시하고 ‘낙랑 수성현’ 관련 사전 지식을 적용하여 잘못 주석했거나, 아니면 당(唐) 시기의 ‘상곡군’이 고대에 실제로 조선 ‘낙랑군’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석했을 수도 있다. 어찌 됐건 『태강지리지(太康地理志)』 원전 내용을 당(唐) 사가(史家)들이 서로 다르게 인용했다는 점은 원본이 소실된 『태강지리지』의 ‘낙랑군 수성현’에서 장성이 시작된다(樂浪遂城縣有碣石山, 長城所起)라는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3. 한반도와 맞지 않는 기록들

진(秦)이 쌓은 장성(長城)의 기점이었다는 낙랑(樂浪) 수성현(遂城縣)을 한반도 평양 인근으로 비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문헌을 통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갈석 남쪽에 회계가 있다면 갈석이 한반도에 있을 수 없다

진(秦) 당시 진시황과 그의 아들 호해(胡亥, BC 230~BC 207)가 동쪽으로 순방(東巡)했던 갈석(碣石)은 ‘남쪽’으로 바다를 따라 내려가면 ‘회계(會稽)’가 나오는 곳이었다.

『史記』 卷六 秦始皇本紀 第六

“三十二年, 始皇之碣石, 使燕人盧生求羨門, 高誓. 刻碣石門. …二世東行郡縣, 李斯從. 到碣石, 並海, 南至會稽, 而盡刻始皇所立刻石.(32년, 시황이 갈석산(碣石)에 가서 연나라 사람 노생(盧生)을 시켜서 선문(羨門)과 고서(高誓)를 찾게 했다. 갈석의 문에다 비문을 새겼다. …2세(황제)가 동쪽 군현을 순행하러 나섰는데 이사가 따랐다. 갈석에서 바다를 따라 남쪽 회계에 이르러 시황이 세운

비석에 글자를 모두 새겼다.)

위 기록 중 회계(會稽)는 현 양장강 일대를 말한다. 그런데 만일 한반도 북부에 갈석이 있었다면, 진시황과 2세황제가 한반도 북부(평양)에 있다는 갈석에 도착한 뒤 ‘바다를 따라서 남쪽에 이르러야(並海南至)’, 즉 ‘해변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야’ 회계(會稽)가 있어야 하는데, 평양에서 ‘해변을 따라(並海)’ 남쪽으로 가서는 양자강 유역의 회계에 닿을 수 없다. 따라서 장성(長城) 끝에 있다는 갈석(碣石)이 한반도 북부(평양)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 갈석산은 중국과 조선의 경계에 있던 산으로 평양은 조선의 국경이 될 수 없다

전한(前漢) 무제(武帝)가 조선을 공격하기 전인 경제(景帝) 시기(BC 157~BC 141)에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 BC 179~BC 122)과 그 문객들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회남자(淮南子=淮南鴻烈)』의 후한(後漢)시기 주석서인 『회남홍렬해(淮南鴻烈解)』²³⁾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淮南鴻烈解』(四庫全書) 卷十

“五位東方之極，自碣石山過朝鮮，貫大人之國…東至日出之次，扶搏木之地，青土樹木之野…太嶠，句芒之所司者，萬二千里。”

(오위 동쪽의 끝은 갈석산에서 조선을 지나 대인의 나라를 뚫고 가면…동쪽에 해가 뜨는 곳에 이른다. 부상목을 받드는 땅이며, 푸른 흙과 수목이 있는 들판으로, …태호와 구망이 다스리는 곳이다. 1만 2천리 떨어져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전한(前漢) 당시 갈석산에서 조선을 지나고 대민국을 거쳐 동쪽으로 1만 2천 리를 가면 해 뜨는 곳, 즉 동해와 인접한 곳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거꾸로 동해 인근에서 서쪽으로 대민국과 조선을 지

23) 후한(後漢)시기 허신(許慎)과 고유(高誘)가 주해(註解)하였다.

나 1만 2천 리 떨어진 중국 내륙 깊은 곳에 갈석산이 있었다는 설명으로, 만일 갈석산이 한반도 중부(평양)에 있었다면 동해 인근에서 서쪽으로 대인국, 조선을 지나 ‘1만 2천 리’에 갈석산이 있을 만한 영토가 없다. 또한 ‘自礪石山過朝鮮(갈석으로부터 조선을 지나)’라는 기록은 갈석산이 조선 중심지인 낙랑 ‘내(內)’에 있는 산이 아니라 조선 서쪽 끝에 있던 산으로서, 동해 인근에서 서쪽으로 ‘1만 2천리나 떨어진’ 중국과 조선의 ‘경계(국경)’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현재 조선(낙랑)의 중심지로 주장되는 평양에서 불과 30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용강군을 조선의 서쪽 변경으로 볼 수는 없고 조선 내지로 보아야 하며, 조선의 변경에 있었던 갈석산 역시 그곳에 있을 수 없다.

3) 갈석을 ‘지나’ 현도와 낙랑이 있다면 갈석은 낙랑의 중심지라는 평양에 있을 수 없다

후한(後漢) 반고(班固, 32~92)가 전한(前漢)시기 내용을 기록한 『한서(漢書)』를 보면 “서쪽으로 여러 나라를 이어 안식국에 이르고, 동쪽으로 ‘갈석을 지나’ 현도와 낙랑을 군(郡)으로 삼았다(西連諸國至于安息, 東過礪石以玄菟, 樂浪爲郡)”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앞의 『회남홍렬해(淮南鴻烈解)』 기록과 같이 전한(前漢, BC 202~8) 당시 조선을 공격할 때 먼저 동쪽으로 ‘갈석을 지나고’ 이후 현도와 낙랑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로, 갈석이 고조선 영토였던 현도와 낙랑 서쪽에 위치해 있었지, 평양 인근 용강군과 같이 고조선 내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4) 평양은 황하와 관련이 없다

장성 기점에 있던 갈석산(礪石山)이 평양에 있었다면 갈석산이 중원 내륙의 황하(河) 또는 황하와 연결된 구하(九河)²⁴⁾와 관련된 곳에 있다는 기록들과 맞지 않는다. 갈석산이 중원 내륙의 황하(河), 구하(九河)와 관련된

곳에 있었다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표 01> 갈석산(碣石山)이 河(황하) 인근임을 전하는 기록

연번	문헌	내용	배경시기	成書연대
[01]	『尙書』 「禹貢」	冀州…島夷皮服, 夾右碣石入于河	하(夏)	전국(BC 3세기)
[02]	『史記』 「夏本紀」	①島夷皮服 夾右碣石②集解孔安國曰: 碣石, 海畔之山也, 入于海③集解徐廣曰海, 一作河	① 하(夏) ② 공안국(孔安國, BC 156~BC 74) ③ 서광(徐廣, 352~425)	① 전한(BC 1세기) ② 남송(5세기) ③ 남송(5세기)
[03]	『山海經』 「北山經」	碣石之山, 澠水出焉, 東流注於河	춘추전국	전국(戰國)- 전한(前漢)
[04]	『吳越春秋』	「越王無余外傳」通江東流, 至於碣石疏九河於潁淵, 開五水於東北	전국시기 (無餘, ?~BC 361)	후한(後漢, 1세기)
[05]	『淮南子』 「時則訓」	中央之極, …龍門, 河, 濟相貫, 以息壤堙洪水之州, 東至碣石 ※ 참고: “濟入于河…東入于海” 『상서(尙書)』 「우공(禹貢)」	BC 2세기	전한(劉安, BC 179~BC 122)

이상의 기록들을 근거할 때 『태강지리지(太康地理志)』에 기록돼 있다는 ‘낙랑 수성현’, 또는 ‘상곡군 수성현’의 진(秦)장성 기점과 갈석산이 한반도 평양 인근에 있었다는 주장은 여러 원전문헌과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상기 [02]-②에서 언급한 ‘海’는 현재의 황해 북쪽 바다인 발해가 아니라 황하 중하류(하북성 중남부)의 중원 내륙해였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하겠다.

24) 『史記正義』 「夏本紀」 “河至冀州, 分布爲九河.”

Ⅲ. 발해만 북부 갈석산 설(說)의 문제점

창려현(昌黎縣)을 비롯한 인근의 낙정현(樂亭縣), 수중현(綏中縣), 북대하구(北戴河區) 등 현 발해만 북부의 4개 갈석산설은, 고대 발해를 현재의 발해(황해 내해)와 동일시 하고, 진(秦)장성이 시작된다는 고대 요동(遼東)의 위치를 현 발해만 북부로 보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러 고문헌을 살펴보면 진(秦)·한(漢) 시기 발해와 요동이 현재와 달리 중원 내륙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진(秦)·한(漢) 당시 발해(勃海)는 중원 내륙해

발해(勃海)는 갈석산과 함께 전국시대 연(戰國燕)나라의 국경을 규정짓는 지표였다.²⁵⁾ 진시황(秦始皇)은 연(燕)을 정복한 이후 이 발해를 따라 동쪽 점령지로 순행하였고(BC 219), 한무제(漢武帝)는 발해를 넘어 고조선을 공격하기도 하였다(BC 109).²⁶⁾ 따라서 발해는 기원전 108년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 진(秦)·한(漢) 당시 중국(燕, 漢)과 고조선의 경계 지역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갈석산과 더불어 ‘발갈(勃碣)’로 함께 불리던²⁷⁾ 발해는 현재 황해 북쪽 바다로서, 진황도시 창려현 인근 갈석산 비정지들은 모두 현재의 발해만 북부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현재의 발해와 발해만 북부 갈석산으로는 “무릇 연은 발갈(발해와 갈석) 사이의 한 도회지다(夫燕亦勃碣之間一都會也).”라고 기록된 『史記』의 기록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발해만 북부

25) 『史記』卷一百二十九 “夫燕亦勃碣之間(正義勃海, 碣石在西北)一都會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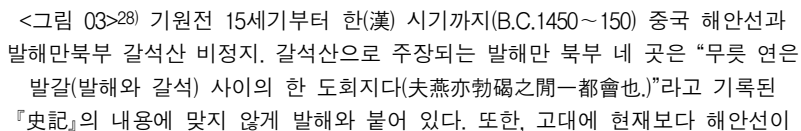
26) 『史記』「秦始皇本紀」, “於是乃並勃海以東, 過黃, 腫, 窮成山, 登之罘.”

『史記』「朝鮮列傳」, “元封二年(BC 109)……天子募罪人擊朝鮮. 其秋, 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

27) 『史記』「天官書」, “勃碣海岱之間氣皆黑. 江淮之間氣皆白.”

『隋書』卷四 帝紀 第四 楊帝下 “高麗小醜, 迷昏不恭, 崇聚勃碣之間, 荐食遼·瀋之境.”

사서(史書)들을 분석하면 진(秦)·한(漢) 당시 발해는 현재의 발해가 아니라 중원 내륙에 있는 거대한 저지대(호수)처럼 묘사돼 있다. 만일 발해가 중원 내륙에 있었다면, 갈석산 역시 현재의 발해가 기준이 아니라 이 중원 내륙의 바다였던 고대 발해 인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8) 앞의 논문 Pauline SEBILLAUD(史宝琳), 2014, p.437.(부록77)

내륙에 깊이 들어왔던 사실로 보면, 고도가 낮은 중원 내륙 저지대 역시 현재보다 많은 물이 차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대 황하가 물을 대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 수백리를 침수시켰던 발해²⁹⁾가, 현재는 말라 흐르지 않는 고대 황하 유역(流域)의 방대한 저지대(<그림 02> 참고)에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1) 발해는 하북성 남부에 위치

675년 당(唐)나라 이현(李賢)은 『後漢書』에 발해가 있던 서한(西漢) 시기 발해군의 위치에 대해 낙양(雒陽)에서 북쪽으로 1,600리 떨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後漢書』 志·郡國

“中山國(高祖置. 雒陽北一千四百里).…勃海郡(高帝置. 雒陽北千六百里).…河間國(文帝置. 世祖省屬信都, 和帝永元元年復故. 雒陽北二千五百里).”

(중산국(고조가 설치하였으며 낙양에서 북쪽으로 1,400리 떨어져 있다.)…발해군(고제가 설치하였으며 낙양에서 북쪽으로 1,600리 떨어져 있다.)…하간국(문제가 설치하였으며 세조 때 줄여서 신도에 속하게 하였고 화제 영원 연간에 옛 땅을 복귀시켰다. 낙양에서 북쪽으로 2,500리 떨어져 있다.))

위 기록대로라면 서한(西漢) 개국황제 고제(高帝, 재위 BC 202-BC 195)가 설치한 발해군이 현재의 하북성 남부에 있던 중산국(中山國)³⁰⁾과 불과 200리 떨어져 있으며, 역시 하북성에 있는 하간국(河間國; 현 하북성 남부 헌현(獻縣))³¹⁾에서 900리 남쪽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서한

29) 『漢書』 『溝洫志』 “大司空掾王橫言：河入勃海，勃海地高於韓牧所欲穿處。往者天嘗連雨，東北風，海水溢，西南出，淺數百里，九河之地已爲海所漸矣。”(대사공 연왕횡이 말하였다. “황하가 발해로 들어가는데, 발해는 한목(韓牧)보다 높아 뚫고 갈 곳을 찾습니다. 이전에 하늘이 비를 계속 내리시고 동북풍이 불어서, 발해의 물(海水)이 넘쳐 서남쪽으로 물이 나갔는데, 수백리를 침수시켜 구하(九河)의 땅이 이미 물(海)에 잠겨 버렸습니다.”)

30) 臧勵齋 等,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1931. p.1399. “靈壽縣：戰國時中山國地…故城在今靈壽縣西北十里 今名寧壽村”(전국시대 중산국 땅인 靈壽縣은 현재 하북성 서남부, 태항산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하북성 石家莊市에 속해 있다.)

(西漢) 당시 발해(발해군)가 하북성 남부 중산국 인근의 거대한 저지대였음은 다음의 기록들로도 알 수 있다.

2) 발해가 중원 내륙해인 증거들

전한(前漢)은 기원전 109년 발해(勃海)를 건너 고조선을 공격했는데,³²⁾ 당시 발해가 현 발해가 아닌 중국 대륙 내에 존재했던 내륙해라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기록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³³⁾

<표 02> 전한(前漢) 시기 발해가 중원 내륙해였던 기록과 설명

발해가 중원 내륙해였던 사실과 관련된 기록	설명
『淮南子』 「天文訓」 “賁星墜而勃海決.” (유성이 떨어져 발해의 독이 터졌다)	발해가 현재의 바다였다면 독이 터질 수 없다.
『史記』 「秦始皇本紀」 “於是乃並勃海以東，過黃腫，窮成山，登之罘，立石頌秦德焉而去.” (이어 발해(勃海)를 따라 동쪽의 황(黃)과 추(腫)를 지나 성산(成山)까지 이르러 지부산(之罘山)에 올라 비석을 세워 진의 덕을 칭송한 다음 떠났다.)	(진시황이) 발해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황(黃), 추(腫)를 지난 뒤, 성산(成山)에 이르러 지부산(之罘山)에 올랐다면 지부산(之罘山)은 발해의 동쪽에 있어야 한다. 즉, 발해 동쪽에도 육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漢書』 「循吏傳」 “宣帝卽位，久之，渤海左右郡歲飢，盜賊並起.” (선제가 즉위(BC 73년)한 뒤 한참 뒤에 발해의 좌우군에 몇 년간 기근이 들	발해의 좌우군이란 발해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 군(郡)이 있었다는 의미로, 발해가 좌우의 여러 군(郡) 사이, 즉, 발해를 기

31) 臧勵蘇 等,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1931. p.517. “【河間郡】 漢河間國。治樂城。卽今直隸獻縣治。後魏初爲河間郡。在今河間縣西南三十五里。”

詞典網(<https://www.cidianwang.com>), 河間郡 “西漢高祖九年(前198年)置，治樂城縣(今河北獻縣東南)。景帝二年(前155年)復改河間郡爲國。其後或郡或國。”(2023.11.01.접속)

32) 『史記』 「朝鮮列傳」 “元封二年(BC 109)…天子募罪人擊朝鮮。其秋，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

33) 발해가 중원 내륙해인 증거는 『漢書』, 『後漢書』, 『北史』, 『隋書』 등 역대 중국 정사에 발해의 독이 터지거나 발해가 범람하여 기근이 든 사실, 발해와 관련된 역대 사서의 지명들이 대부분 황하하류를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들을 통해 확인된다. 그러한 발해가 중원 내륙해였음을 알리는 많은 기록들 중 본고에는 前漢과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소개한다.

어 도적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漢書』「趙尹韓張兩王傳」, “伏聞, 膠東勃海左右郡, 歲數不登, 盜賊並起.”(듣건대 교동과 발해 좌우(주변)의 군에 해마다 기근이 들어, 도적이 함께 일어났다고 합니다.)	준으로 발해를 둘러싼 ‘주변’의 여러 군들과 인접한 내륙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기록은 발해와 교동(산둥) 주변 일부 지역(좁은 범위)에 기근이 들고 도둑이 들끓었다는 의미로, 현재 기준 발해 좌우(주변) 군(郡)들이라면 교동(산둥)과 거리가 먼 요서와 요동 지역도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역이므로 기록과 맞지 않는다.
『漢書』「天文志」, “元帝初元元年…其五月, 勃海水大溢. 六月, 關東大飢, 民多餓死, 琅邪郡人相食.”(원제 초원 원년(BC 48년)…그해 오월에 발해의 물이 크게 넘쳤다. 6월에 관동에 대기근이 발생하여 많은 백성이 아사하고 남아군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 먹었다.)	발해의 물이 크게 넘쳐 대기근이 발생했다면, 당시 발해는 홍수가 나도 수면이 일정한 현재의 발해가 아니라 중원 내륙의 거대한 호수나 강이었음을 의미한다.
『漢書』「帝劉紀」, “(鴻嘉四年, BC 17년) 秋, 勃海, 清河河溢, 被災者振貸之.”((BC 17년) 가을에 발해, 청하의 하수가 넘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구휼하였다.)	발해와 청하(清河)의 ‘하수(河)’가 넘쳤다면 발해는 강이나 호수와 같은 곳임을 의미한다. 청하는 현재의 하북성 남부 청하현(清河縣)에 있었다.
『漢書』「溝洫志」, “是歲, 勃海, 清河, 信都河水溢溢, 灌縣邑三十一, 敗官亭民舍四萬餘所.”(당시 발해, 청하, 신도의 하수가 크게 넘쳐 31개 현과 읍에 흘러들어 관정과 민가 4만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大司空掾王橫言: 河入勃海, 勃海地高於韓牧所欲穿處.”(대사공 연왕횡이 말하였다. “황하가 발해로 들어가는데, 발해는 한목(韓牧)보다 높아 뚫고 갈 곳을 찾습니다.”)	발해는 청하(清河), 신도(信都) 지역 인근에 있었으며, 청하, 신도가 모두 현 하북성 남부에 위치해 있으므로, 발해 역시 하북성 남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황하가 유입되는 발해는 ‘호를 곳을 찾는’ 내륙의 거대한 호수나 강과 같은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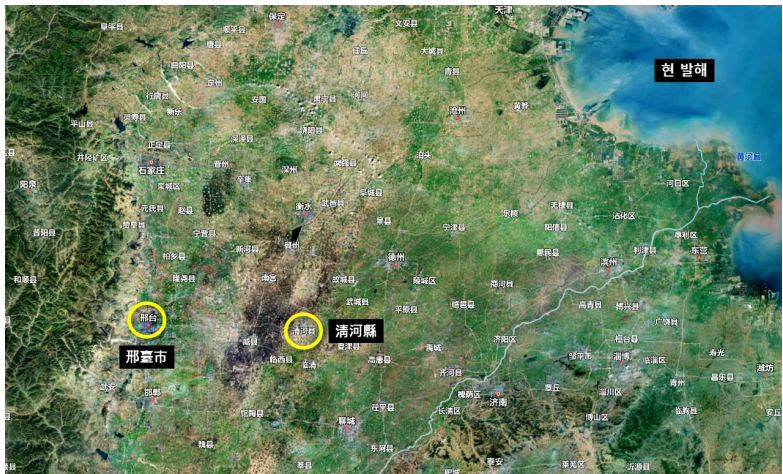
상기 『한서(漢書)』「구혁지(溝洫志)」에서 전한(前漢) 당시 발해는 청하(清河, 현재의 하북성 남부 청하현(清河縣))³⁴⁾와 신도(信都, 현 하북성 남서부 형대시(邢臺市))³⁵⁾ 인근에 있었으며, 이 두 지역은 모두 아래 그림과 같

34) 臧勵穌 等,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1931. p.831. “【清河郡】 漢置. 今直隸之清河. 故城. 棗強. 南宮. 山東之清平. 恩縣. 冠縣. 高唐. 臨清. 武城之地.”

詞典網(<https://www.cidianwang.com>), 清河郡 “西漢高帝置, 治所在清陽縣(今河北清河縣東南).”(2023.11.01.접속)

35) 臧勵穌 等,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1931. p.579. “【信都郡】 漢置. 本廣川國. 有直隸舊冀州. 深州. 景州等地. 今冀縣治東北有信都故城.”

이 현재 하북성 남부의 거대한 저지대 주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04> 전한(前漢) 당시 발해군(渤海郡)과 인접해 있던 청하군(清河郡, 현 청하현), 신도군(信都郡, 현 형대시)을 위성에서 바라본 모습. 하북성 남부에 있는 이 두 지역(청하~형대) 사이 거대한 저지대(짙은 색 부분)가 발해로 추정된다.

이상의 기록은 발해가 현재처럼 황해 북쪽 바다가 아니라 중원 내륙에서 동서가 육지이며 물이 넘치는 거대한 호수 같은 곳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갈석산 역시 현재의 발해 기준이 아닌 고대 발해인 하북성 남부 인근을 기준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2. 진(秦)장성의 동쪽 기점 ‘요동(遼東)’의 위치

『사기(史記)』 『몽염열전(蒙恬列傳)』에 “진(秦) 장성이 요동에 이르렀다 (築長城…至遼東)”³⁶⁾는 내용 중 ‘요동(遼東)’의 위치는 현재의 요동과 전혀

詞典網(<https://www.cidianwang.com>), 信都縣 “秦置, 屬巨鹿郡. 治所即今河北邢臺市.”(2023.11.01.접속)

36) 『史記』 『蒙恬列傳』 卷八十八 蒙恬列傳第二十八 “始皇二十六年…收河南築長城, 因地形用

다르게 하북성 중남부에 위치한 보정시(保定市), 석가장시(石家莊市) 인근이었을 가능성 역시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진태강지지(태강지리지)』를 인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서들보다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사서인 『통전(通典)』에는 “『진태강지지』에 진(秦)이 쌓은 장성이 갈석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晉太康地志同(云)秦築長城所起自礪石)”라고 하여, 진(秦) 장성의 기점에 갈석산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상기 『사기(史記)』 『몽염열전(蒙恬列傳)』의 기록인 ‘진(秦)장성이 요동에 이르렀다(築長城…至遼東)’라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진(秦) 당시 쌓은 장성이 시작되는 곳(장성이 이른 곳)이 바로 요동(遼東)이었고 그곳에 갈석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갈석산이 있고 진장성(秦長城)의 기점이었던 요동이 한(漢) 당시 북경 남쪽(하북성 중부 이남)에 있었다면, 현재 북경 동쪽 발해만 북부 갈석산들은 고대 ‘진장성(秦長城)’ 기점과 ‘갈석’이 있었던 ‘요동(遼東)’과 관련이 없는 곳에 위치해 있게 되므로 잘못 비정된 곳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1) 요동은 연(燕), 제(齊), 조(趙)가 공유한 곳으로 발해만 북부가 될 수 없다

전국시대 연(燕)나라가 조선을 치기 이전 연나라 동쪽에 ‘조선(朝鮮)’과 ‘요동(遼東)’이 있었고 그 남쪽에 조(趙)나라와 제(齊)나라가 있었다.³⁷⁾ 그런데, 서기 1세기 후한(後漢) 시기에 기록된 『월절서(越絕書)』³⁸⁾를 보면 연(燕)나라 동쪽에 있던 ‘요동(遼東)’이 연(燕), 제(齊), 조(趙) 세 나라가 공유

制險塞，起臨洮，至遼東，延袤萬餘里。”

37) 『戰國策』 「燕策」 “北說燕文侯曰，燕東有朝鮮，遼東，北有林胡，樓煩…燕王曰，寡人國小，西迫強秦，南近齊，趙，齊，趙，強國也。”

38) 『越絕書』는 중국 고대 오월(吳越) 지방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춘추시대 말기부터 전국 초기까지 오(吳)와 월(越)의 패권전쟁에 대한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한(漢) 시기 원강(袁康)과 오평(吳平)이 지은 것으로 전한다.

했던 곳으로 나온다. 즉, 기원전 3세기 조선이 연(燕)의 공격에 의해 위축된 이후 어느 시기인가 연(燕), 제(齊), 조(趙)가 요동(遼東) 지역을 각각 차지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요동(遼東)’이 현재처럼 만리장성 동쪽이 아닌 연(燕)나라, 제(齊)나라 조(趙)나라가 공유할 수 있는 지역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전국(戰國)시대 연(燕)의 수도 계성(薊城)이 북경이고 요동이 현재의 요하 동쪽에 있었다면, 연나라 동쪽에 있었다는 요동이 연(燕)나라 제(齊)나라, 조(趙)나라가 공유할 수 없는 발해만 북부 지역이 되므로 『월절서(越絕書)』의 기록과 맞지 않게 된다.

『越絕書』(四庫全書) 卷十二

“燕故治, 今上漁陽, 右北平, 遼東, 莫郡, 尾, 箕也…”

齊故治臨菑, 今濟北, 平原, 北海郡, 菑川, 遼東, 城陽, 虛, 危也…”

趙故治邯鄲, 今遼東, 隴西, 北地, 上郡, 雁門, 北郡, 清河, 參也.”

(연이 옛날에 다스리던 지역은 현재 어양 윗쪽으로 우북평, 요동, 막군, 미, 기이다…

제가 옛날에 다스리던 지역은 임치로 현재 제북, 평원, 북해군, 치천, 요동, 성양, 허, 위이다… 조가 옛날에 다스리던 지역은 한단으로 현재 요동, 농서, 북지, 상군, 안문, 북군, 청하, 참이다.)

상기 기록의 요동(遼東) 가운데 서기 1세기 『월절서』가 기록될 당시(후한 시기) 조(趙)에 속해 있던 요동(今遼東)은 현재 중국 서부 감숙성(甘肅省)에 해당하는 농서(隴西)와 함께 조(趙)의 영역에 포함되었던 곳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후한(後漢) 당시 요동(遼東)이 현재처럼 중국 동북이 아니라 전국시대 연(燕)의 남쪽, 제(齊)의 서쪽에 있던 조(趙)나라와 가까운 중국 중부나 중서부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요동(遼東)의 기준이 되는 ‘요주(遼州)’는 수나라 개황 16년(隋開皇十六年, 596년)에 현 산서성(山西省) 중남부의 진중시(晉中市) 석양현(昔陽縣)에 설치했다가 이후 당 무덕 8년(唐武德八年, 625년)에 현 하북성 석가장시(石

家莊市) 서남에 있는 진중시(晉中市) 좌권현(左權縣)으로 이주했는데, 1912년까지 요주(遼州)로 유지되다가 요현(遼縣)으로, 다시 1942년 좌권현으로 바뀐다.³⁹⁾ 이렇게 요주(遼州)가 태항산맥(太行山脈) 중부(석가장시 서남)에 있었다면, 상기 『월절서』 내용대로 연(燕), 제(齊), 조(趙)가 공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적당하며, 이는 요동의 기준이 되는 ‘요(遼)’라는 지명이 기원전 전국(戰國)시기에 이미 현재 진중시(晉中市) 인근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 후한 당시 요하는 현재와 달리 동쪽으로 곧게 흐르는 강이었다

다음은 『여씨춘추(呂氏春秋)』와 『회남자(淮南子=淮南鴻烈)』의 원문에 후한(後漢) 말 고유(高誘)가 주석을 단 내용과, 북위(北魏) 역도원이 저술한 『수경주(水經注)』 기록이다.

『呂氏春秋』(四庫全書) 卷十三：後漢 高誘 注

“遼水出砥石山，自塞北東流直，至遼東之西南入海。”(요수는 지석산을 나와, 북쪽변경에서 동쪽으로 곧게 흘러, 요동의 서남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淮南鴻烈解』(四庫全書) 卷七：後漢 高誘 注

“遼水出碣石山，自塞北東流直，遼東之西南入海。”(요수는 갈석산에서 나와, 북쪽변경(塞北)에서 동쪽으로 곧게 흘러 요동의 서남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水經注』(四庫全書) 卷十四：北魏 酈道元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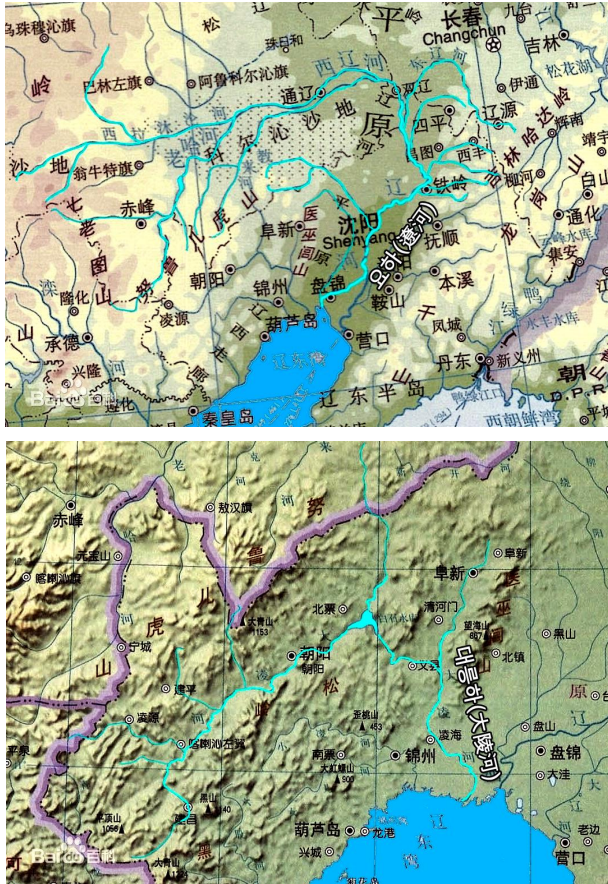
“大遼水出塞外，衛白平山東南入塞，過遼東襄平縣西，遼水亦言出砥石山，…自塞外東流直，遼東之望平縣西。”(대요수는 요새 밖에서 나와, 위(衛)의 백평산 동남쪽 요새로 들어가며 요동 양평현 서쪽을 지나간다. 요수 역시 지석산을 나

39)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遼州 “隋開皇十六年(公元596年)置。治所在樂平(今昔陽西南)。大業初廢。唐初復置，移治遼山(今左權)。人稱‘老遼州’。轄境相當今山西左權、和順、榆社等縣地。明洪武初省遼山入州，升爲直隸州。1912年改本州爲縣。1942年改左權縣。”(2023.10.02. 접속)

와, …요새 밖에서 동쪽으로 곧게 흘러 요동의 망평현 서쪽에 이른다고 한다.)

이 기록들을 보면 요동의 기준이 되는 요수(遼水)가 후한(後漢, 25~220) 시기에 북쪽 변경(塞北)에서 나와 ‘동쪽으로 곧게 흘러(東流直)’ 후한 당시의 ‘요동 서남부(遼東之西南)’에 이르러(至) 바다로 들어가고(入海), 북위(北魏, 386~534) 시기에도 역시 변경 밖(塞外)에서 나와 “동쪽으로 곧게 흘러(東流直)” 요동 망평현(望平縣) 서쪽에 이르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요수(遼水, 요하)는 현재 요하처럼 동쪽으로 흐르다 서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흐르는 강이 될 수 없고, 북쪽 변경(塞北)으로 볼 수 있는 서쪽 태항산맥을 나와 중원 일대를 동쪽으로 곧게 흐르다가 방향의 변동 없이 바로 요동 서남쪽에까지 흘러서 중원 내륙해였던 발해(渤海)로 유입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후한 당시 요동이 현재 서남쪽으로 흐르는 요하의 동쪽을 의미하는 요동과 위치상 다른 곳이었고, 갈석산 역시 동쪽으로 흐르던 고대 요하 인근인 중원 내륙에 위치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현재의 요동 인근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으로 발해만 북부 대릉하(大陵河)가 있다. 그런데 대릉하는 ‘동쪽으로 곧게 흘러(東流直)’ ‘요동의 서남부’에 이르는(至) 것이 아니라 상류에서는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중류에서 ‘동남쪽’으로 90°가까이 방향을 바꾸어 흐른 뒤, 현재의 요동이 아닌 ‘요서(遼西)’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의 요하(遼河)와 마찬가지로 위 기록상의 고대 요하(요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요수(遼水)가 출원한다는 지석산(砥石山)을 갈석산(碣石山)으로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요하(遼河)나 대릉하(大陵河) 상류는 ‘황하(河)’나 ‘바다(海)’ 인근에 있어야 하는 갈석산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다.



<그림 05>⁴⁰⁾ 현재의 요하(遼河, 상)와 대릉하(大陵河, 하). 현 요하는 상류인 실란물룬강(西拉木倫河)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서요하(西遼河) 유역에서 남남동으로, 하류에서는 서남으로 방향을 크게 바꾸어 흐른다. 대릉하 역시 상류에서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중하류에서 동남쪽으로 방향을 90° 가까이 바꾼다. 이러한 하류(河流)의 방향은 후한(後漢) 고유(高誘)가 말한 “요수는…동쪽으로 곧게 흘러(東流直), 요동의 서남에 이르러(至) 바다로 들어간다(遼水…東流直, 至遼東之西南入海)”라는 기록과 맞지 않으므로 두 강을 고대 요하로 보기 어렵다.

40)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遼河, 大陵河(2023.11.03.접속)

3) 요동군 치소 양평은 중원 내륙의 장수(漳水), 황하(河)와 연결된 양수(梁水) 인근에 있었다

후한(後漢) 당시 요동군에 있던 양평(襄平)은 후한 말 요동태수였던 공손도(公孫度, ?~204년)의 고향이자 평주(平州)와 요동군의 치소였으며, 그의 손자 요동태수 공손문의(公孫文, 公孫淵)가 반란을 일으킬 당시(238년)에도 요동군 치소였다. 이렇게 요동의 중심지였던 양평(襄平) 근처에는 양수(梁水)가 흘렀는데, 이 양수는 현 황하 북쪽, 태항산맥 남부에서 동서로 흐르는 장수(漳水)의 지류이며, 장수(漳水)는 또 황하(河)로 유입됐던 사실을 통해서도 ‘요동이 중원 내륙(황하 유역)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晉書』卷一 帝紀第一

“遼東太守公孫文懿反…次于遼水…棄賊而向襄平…時有長星…自襄平城西南流于東北, 墜於梁水, 城中震懼. …斬于梁水之上星墜之所.(요동태수 공손문의가 반란을 일으켰다…요수에 이르렀는데…적들을 버리고 양평으로 향하였다… 이때 혜성(長星)이 있었는데…양평성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날아가 양수에 떨어졌다. 성안(城中)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다…양수 위의 별이 떨어진 곳에서 참수하였다.)

『水經注』卷十 濁漳水清漳水

“濁漳水…其水東北流入漳水. 漳水東會於梁水…梁水又北入漳水.(탁장수…그 물길은 동북쪽으로 장수에 유입이 된다. 장수는 동쪽에서 양수와 만나는데…양수는 또 북쪽으로 장수에 유입된다.)

『漢書(顏師古注)』地理志第八下

“斥章(應劭曰 漳水出治北, 入河. 其國斥鹵, 故曰斥章.)”(척장(응소는 ‘장수가 그 치소 북쪽에서 나와 황하에 유입되는데, 그 나라는 염분기가 있어서 척장이 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위 기록들을 통해 후한(後漢), 조위(曹魏), 서진(西晉) 당시(1세기~3세

기)에 ‘요동(遼東)’이 현 만리장성과 관련이 없는 태항산맥(太行山脈) 중부 이남의 양수(梁水), 장수(漳水), 황하(河)가 흐르는 중원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사실 역시 『사기(史記)』 『몽염열전(蒙恬列傳)』에 나오는 진장성(秦長城)의 동단인 ‘요동(遼東)’의 위치가 현 갈석산이 있다고 주장되는 북경 동쪽(발해만 북부)이 아니라, 중원 내륙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4) 요동군에서 분리된 창려의 위치는 현재의 북경 동쪽이 아니라 북경 서남쪽이었다

서기 238년, 요동태수(遼東太守) 공손문의(公孫文懿)가 반란을 일으키자 삼국시대 위(魏)의 명제(明帝) 조예(曹叡)는 낙양(洛陽)에서 ‘요동’에 가기 위해, 중간에 고죽과 갈석을 넘어 요수(遼水)에 이른다.⁴¹⁾ 당시 조예(曹叡)가 가려던 ‘요동(遼東)’이 북경 남쪽이었음은 다음의 사실로 확인된다.

『魏書』 『地形志』

“昌黎郡(永興中置)…昌黎郡(晉分遼東置, 眞君八年併冀陽屬焉)…龍城(眞君八年併柳城, 昌黎, 棘城屬焉)…冀陽郡(眞君八年併昌黎, 武定五年復)”(창려군(영흥중(153~154)에 설치하였다)…창려군(晉이 요동에서 분리하여 설치하였는데, 진군8년(447) 기양과 병합하여 속하게 했다)…용성(진군8년(447) 유성, 창려, 극성을 병합하여 속하게 했다)…기양군(진군8년(447) 창려와 병합하였고, 무정5년(547)에 부활하였다.)

위 기록에서 창려(昌黎)는 후한 시기(永興中) 요동(遼東)에 설치했는데 진(晉) 당시(447년)에 요동에서 분리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요동에서 분리된 창려가 현재처럼 북경 동쪽이 아니라 현 수성현(遂城縣)이 있는 북경 남쪽 보정시(保定市)에 있었음을 중국 담기양(譚其驤) 주필의 지도 중

41) 『晉書』 『帝紀第一』 “及遼東太守公孫文懿反, 徽帝詣京師…景初二年(238), 帥牛金, 胡遵等步騎四萬, 發自京都…遂進師, 經孤竹, 越碣石, 次于遼水”

‘572년(武平三年)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06>⁴²⁾ 진(晉)이 요동에서 분리해 설치한 창려군(昌黎郡)의 572년 당시 위치와 현재 발해만 북부로 이동된 창려현의 위치

상기 지도와 같이 창령가 572년(武平三年)에 북경 남쪽에 있었다면, 창령군이 요동군에서 분리되기 전 서진(西晉, 265~316) 당시에도 요동군(遼東郡)이 현 북경 동쪽이 아닌 북경 남쪽 보정시(保定市) 인근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동에서 분리된 창령가 이후 병합되는 기양(冀陽)이라는 지역명은 기주(冀州)에 있는 산의 남쪽(陽)이라는 의미로, 요동에 속했던 창령가 태향산맥이 있는 고대 기주(冀州) 인근에 있었다면 요동이 태향산맥과 가까운 중원 내륙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앞의 『魏書』 「地形志」의 내용 중 “龍城(眞君八年併柳城, 昌黎, 棘城屬焉.) (용성(진군8년(447) 유성, 창려, 극성을 병합하여 속하게 했다.))”라는 내용을 보면 북위(北魏) 당시 창려가 유성(柳城), 극성(棘城)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으며, 이후 447년 함께 병합되어 용성(龍城)이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요사(遼史)』에 따르면 이렇게 창려와 가까이 있던 유성(柳城)

42) 앞의 책 譚其驤, 1996 참조.

이 한(漢)나라 당시 ‘요서군(遼西郡)’에 속해 있었고, 요(遼)나라 당시에는 그 지역이 동북쪽으로 해(奚), 거란(契丹)과 접하고 있었다고 한다.

『遼史』卷四十 志第十 地理志四

“廣寧縣：漢柳城縣，屬遼西郡。東北與奚，契丹接境”(광녕현(廣寧縣) : 한(漢)의 유성현(柳城縣)인데 요서군(遼西郡)에 속했다. 동북쪽으로는 해(奚), 거란(契丹)과 맞붙어있다.)

즉, 이 기록은 한(漢)나라 시기 요서군(遼西郡)에 속한 유성현(柳城縣)이 요(遼)나라 시기에는 거란 ‘서남부’에 위치해 있었다는 의미로, 한(漢)나라 시기 요서(遼西) 지역이 거란(요)보다 남쪽(서남)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요서군 인근에 있었을 요동군 역시 한(漢)나라 시기에 거란 남부에 위치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거란(요)의 남쪽 국경은 현재 일반적으로 북경을 포함한 중국 북부로 비정되므로, 한(漢)나라 시기에 요서(遼西)는 북경 남쪽에 있었고, 요동(遼東) 역시 그 인근에 있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요사(遼史)』에 기록된 한(漢)나라 ‘요서군(遼西郡) 유성현(柳城縣)’과, 『위서(魏書)』에 기록된 유성현 인근의 ‘요동군(遼東郡) 창려현(昌黎縣)’은 모두 북경 남쪽에 있었으며, 이는 고대 ‘요동(遼東)’이 현재와 달리 북경 남쪽인 하북성 중남부에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다.

5) 요주(遼州)와 요산(遼山), 상곡(上谷)은 하북성 중부에 있었다

『사기(史記)』에 기록된 진(秦) 장성의 끝인 ‘요동(遼東)’을 『사기정의(史記正義)』에는 ‘요수(遼水)’로 바꾸면서 그곳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東入遼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⁴³⁾ 앞서 밝혔듯 요수(遼水)와 관련이 있는 당(唐) 시기 요주(遼州)는 중국 중원의 중심 산맥인 태항산맥 중부, 즉 현 하북성

43) 『史記』匈奴列傳 “正義括地志云，秦隴西郡臨洮縣，即今岷州城。本秦長城首，起岷州西十二里，延袤萬餘里，東入遼水。”

석가장시(石家莊市) 서남부인 산서성 진중시 좌권현(左權縣)이었는데, 원래는 수(隋)나라 당시 태원군(太原郡)에 속했던 요산현(遼山縣)이었다.⁴⁴⁾ 즉, 요산(遼山) 역시 현 하북성 석가장시 서남부(현 산서성 太原市 동남부)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기정의(史記正義)』에 나오는 ‘요수(遼水)’는 후한(後漢, 25~220)의 고유(高誘)가 말한 ‘동쪽으로 곧게 흐르는 강’으로서, 당(唐) 시기까지도 요산(遼山)이 있던 태항산맥 중부 요주(遼州, 좌권현) 인근을 지나 동쪽으로 흘렀으며,⁴⁵⁾ 요동(遼東)은 요주(遼州)가 있던 하북성 석가장시 좌권현 동쪽, 즉, 현 하북성 남부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요동(遼東)’이 현재의 하북성 남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사기(史記)』에 진(秦)이 멸망하기 전, 흉노 모돈 선우가 즉위할 당시인 기원전 209년경에 흉노와 예맥조선(穢貉朝鮮)이 ‘상곡(上谷)’에서 접하고 있었다고 하는데,⁴⁶⁾ 현재 중국에서 흉노와 예맥조선의 국경이었던 상곡(上谷)의 비정지를 하북성 중남부 보정시(保定市)⁴⁷⁾ 또는 하북성 중북부 장가구시(張家口市)⁴⁸⁾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북성 중부 인근이 흉노와 예맥조선의 경계지라면 진장성(秦長城)과 장성의 종점인 요동은 하북성 중부를 넘지 못하고 그 남쪽(하북성 중부 이하)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하북성 중북부에 있는 장가구시보다 하북성 중남

44) 『舊唐書』「地理二」“遼州隋太原郡之遼山縣 武德三年, 分并州之樂平和順平城石艾四縣置遼州, 治樂平.”

45) 『淮南鴻烈解』(四庫全書) 卷七(後漢 高誘 注) “遼水出碣石山, 自塞北東流直, 遼東之西南入海”

46) 『史記』「匈奴列傳」“冒頓既立(B.C.209), 是時東胡彊盛…諸左方王將居東方. 直上谷以往者, 東接穢貉朝鮮(흉노 모돈선우 즉위 시 동호가 강성했다. 모든 좌왕들은 동쪽에 거했는데 상곡까지(以往者)를 다스렸으며, (상곡에서) 동쪽으로 예맥조선과 접했다.)”

47) (1) 臧勵齋 等,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1931. p.42. “秦滅代, 置上谷郡, 舊保定, 易州, 宣化, 及順天, 河間之一部(秦이 대를 멸하고 상곡군을 설치하는데 옛 보정이다. 역주, 신화, 순천, 하간(河間, 황하하류유역)의 일부이다)”

(2) 秦蕙田(淸), 『五禮通考』第27部分 “易州亦爲上谷郡今保定府(역주는 상곡군이기도 한데, 현 보정부이다)”

48)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上谷郡 “今河北省張家口市懷來縣”, (2023.11.03.접속)

부에 있는 보정시가 상곡(上谷)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⁴⁹⁾ 『사기(史記)』 『몽염열전(蒙恬列傳)』에 “진(秦) 장성이 요동에 이르렀다(築長城…至遼東)”는 내용의 요동과 장성은 흉노와 조선이 국경을 접하던 하북성 중남부 보정시 이남에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6) 진(秦)장성 동단은 황하 동쪽(山西省, 河北省 일대)을 넘을 수 없다

『사기(史記)』 『몽염열전(蒙恬列傳)』에는 몽염이 용적(흉노)을 몰아내고 ‘황하 이남(河南)’을 차지한 뒤 임조(臨洮)에서 요동(遼東)에 이르기까지 장성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과 관련하여 『사기정의(史記正義)』에는 진시황의 장성이 ‘서남쪽’으로는 ‘바다(海)’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요수(遼水)에 이른다고 주석하고 있다.⁵⁰⁾ 그런데, 이 『사기정의(史記正義)』 기록에서 진(秦)장성의 ‘서남쪽’에 있었다는 바다(海)는 어디일까?

진(秦)의 수도였던 섬서성(陝西省) 함양(咸陽)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700Km를 올라가면 황하가 모자처럼 감싸고 있는 하투(河套) 지역(아래 <그림 07> 참조)이 나오는데, 진(秦)시황은 BC 221년 중원을 통일한 뒤, BC

49) 연(燕)의 북방에 있던 상곡(上谷)을 현재 중국에서 하북성 보정시(保定市) 이외에 하북성 장가구시(張家口市)로도 비정하고 있다. 북경 서북쪽에 있는 장가구시가 흉노와 예맥조선의 국경인 상곡이라는 주장은 『史記正義』에 “상곡은 현 위주(薊州)이다. 유주(幽州) 서북에 있다(上谷今薊州也在幽州西北)”라는 기록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史記正義』에 나오는 상곡이 있다는 위주(薊州), 유주(幽州)서북 지역이 장가구시라는 주장은, 730년 연이 유주(북경)로 이주된 이후의 燕(북경)을 기준으로 볼 때는 장가구시가 북경 서북쪽에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책 『史記正義』에는 연의 서북쪽에 상곡 뿐 아니라 ‘갈석산’도 있었다고 하므로(碣石在西北), 그곳(장가구시)은 갈석산과 관련이 있는 요동이나 황하, 바다(발해)가 있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 북경(연) 서북쪽 장가구시는 황하나 바다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곳(장가구시)을 상곡이 있었다는 위주(薊州), 유주(幽州)서북 지역으로 보면 안되는 것이다. 이는 당(唐) 당시 ‘연의 서북에 있던’ ‘상곡(上谷)’이 현재 장가구시보다 훨씬 남쪽에 있었음을 말하며, 그래야 비로소 ‘갈석산’도 황하나 요동(하북성 중남부)과 가까워져 ‘연의 서북’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 ‘3. 唐(당) 시기 연(燕)의 위치 이동’ 참조.

50) 『史記』 『蒙恬列傳』 “乃使蒙恬將三十萬衆北逐戎狄，收河南。築長城，因地形，用制險塞，起臨洮，至遼東(正義遼東郡在遼水東，始皇築長城東至遼水，西南至海)延袤萬餘里。”

215년(秦始皇三十二年)에 몽염(蒙恬, ? ~ BC 210)을 시켜 이 황하 이남(하투)에 살던 흉노를 몰아내고, BC 214년(秦始皇三十三年) 황하를 건너 북가(北假), 음산(陰山) 지역에 장성(亭障)을 쌓는다. 당시 장성을 쌓았던 북가(北假)와 음산(陰山)은 현재 내몽고자치구에 속하는 중국의 북쪽 지역으로,⁵¹⁾ 그곳에서 서남쪽으로 수천리 내려가다 보면, 청나라 시기까지도 서쪽 바다(西海)로 불리던 청해(青海)⁵²⁾가 나온다. 『사기정의(史記正義)』에 장성의 서남쪽 끝에 있다는 바다가 바로 이 현재에도 ‘푸른 바다(青海)’로 불리는 청해성(青海省)의 청해호(青海湖)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진시황의 장성은 ‘동쪽 바다’가 아닌 ‘서남쪽 바다’에 이르렀으며, 현재의 북경 ‘동쪽 바다(발해)’에 이르는 진황도시(秦皇島市) 산해관(山海關) 장성이 진(秦) 당시 진(秦)장성의 동쪽 종점, 즉 요동(遼東)이라는 문헌적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진시황 당시 황하 동쪽(산서성, 하북성 일대)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진시황이 점령하지 못한 곳이었다. 진(秦)이 BC 214년에 황하를 넘어 음산(陰山)과 북가(北假) 일대에 역참과 방어시설(亭障), 즉 ‘장성’을 쌓기 시작한 지⁵³⁾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몽염(蒙恬)이 죽자(秦始皇三十七年, BC 210년), 흉노는 하투지역(황하 이남)을 진(秦)으로부터 되찾는다.⁵⁴⁾ 즉, 흉노는 진(秦)에 의해 일부 영역(하투지역)만 일시적으로 빼앗겼을 뿐 망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흉노 왕 두만선우(頭曼單于, 재위 : BC 220~BC

51) 臧勵詠 等,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1931. p.186. “【北假】 在綏遠境烏喇特旗西北故九原城之西。[史記匈奴傳]秦使蒙恬將十萬衆北擊胡。”

詞典網(<https://www.cidianwang.com>), 北假 “秦漢稱今內蒙古河套以北、陰山以南夾山帶河地區爲北假。《史記·匈奴列傳》：秦始皇三十三年(前214), 蒙恬將兵北逐匈奴, ‘度河據陽山(今陰山)北假中’, 即此。”

52) (清)平江九霞, 『大清廣輿圖原圖』, 東都, (日本)國立國會圖書館, 1785. “青海一名西海”

53) 『史記』「秦始皇本紀」“三十二年(BC 215)…始皇乃使將軍蒙恬發兵三十萬人北擊胡, 略取河南地…三十三年(BC 214)…自榆中並河以東, 屬之陰山, 以爲十四縣, 城河上爲塞. 又使蒙恬渡河取高關, (陶)[陽]山, 北假中, 築亭障以逐戎人.”

54) 『史記』「秦始皇本紀」“十餘年而蒙恬死, 諸侯畔秦, 中國擾亂, 諸秦所徙適戍邊者皆復去, 於是匈奴得寬, 復稍度河南與中國界於故塞.”

209)가 황하 이남 하투지역을 진(秦)으로부터 다시 탈환할 당시 흉노의 동쪽에는 진(秦)이 점령하지 않은 강한 동호(東胡)가 있었으며,⁵⁵⁾ 두만선우가 죽고 그의 아들인 모돈선우(冒頓單于)가 왕이 되던 해(BC 209)에는 흉노와 예맥조선의 경계가 현 하북성 중부에 있던 상곡(上谷, 하북성 保定市, 또는 하북성 張家口市)이었다.⁵⁶⁾ 따라서, 진시황이 쌓은 장성이 두만선우가 건재했던 ‘황하 이북’과, 당시 강한 세력을 유지했다는 동호(東胡)가 있던 ‘흉노 동쪽’ 지역, 그리고 흉노와 예맥조선이 접경하고 있던 ‘하북성 중부 일대(上谷)’를 지나 북경 동쪽 발해만까지 이를 수 없으며, 진(秦)장성 동쪽 끝에 있다는 갈석산 역시 현 발해만 북부에 있을 수 없고, 그곳이 요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현재 중국에서 진(秦)의 영역을 북쪽으로 하북성 북쪽 내몽골 지역을 가로질러 한반도까지 그리고 있는데(<그림 01> 참조), 이는 문헌기록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BC 214년(秦始皇三十三年) 진(秦)이 황하 이북 지역(陰山, 北假)에 장성을 쌓기 시작한 이후 불과 4년 여 만에(몽염이 사망하던 BC 210년 경) 흉노가 다시 이 지역을 되찾기 시작했다면, 이 짧은 기간 동안 진시황이 ‘흉노’와 그 동쪽의 강국 ‘동호(東胡)’, 하북성(상곡 동쪽)의 ‘예맥조선’을 모두 물리치고, ‘수천리나 되는 장성(북가·음산~발해만북부 또는 한반도 북부)을 쌓아 발해 또는 한반도에 이르렀으며, 다시 그 땅 수천리를 그 기간 안에 모두 잃었다는 의미로서, 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련된 기록도 찾을 수 없다. 당시는 흉노가 동호(東胡)와 예맥조선을 점령하지 못한 때였고, 진(秦) 역시 이 동호(東胡)나 예맥조선을 공격해서 점령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므로, 진(秦)장성이 내몽고자치구 서부에서 흉노와 예맥조선의 국경인 하북성 중부(상곡)를 넘어 동쪽 발해만 북부까지 수천리 건설됐다는 중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55) 『史記』『匈奴列傳』, “當是之時, 東胡疆而月氏盛. 匈奴單于曰頭曼. 頭曼不勝秦, 北徙.”

56) 앞의 내용 ‘(5) 요주(遼州)와 요산(遼山), 상곡(上谷)은 하북성 중부에 있었다.’ 참조.



57) 史党社,「戰國秦長城東北端走向及相關遺存辨析」,『中國歷史地理論叢』36(1), 2021, p.142.

(趙)장성(■■■■)'과 달리 동쪽으로 내몽고자치구 서남부 호화호특(呼和浩特)을 넘지 않은 것으로 그려져 있다. 진시황 재위 당시(BC 259~BC 210) 흉노는 망한 것이 아니었고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하투지역을 진(秦)으로부터 회복한다. 당시 흉노 동쪽에는 강한 동호(東胡)가 있었고, 하북성 중부에는 흉노와 예맥조선이 접경하고 있었다(BC 209). 따라서 진(秦) 당시 장성은 동쪽으로 발해만에 이를 수 없다.

이상의 기록들과 같이 요동이 현재와 달리 중원 내륙에 있었다면 요동에 있었던 진장성(秦長城) 동단과 갈석산 역시 현 발해만 북부와 다른 곳, 즉 중원 내륙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북경 동쪽의 만리장성은 진장성(秦長城)이 아니며, 발해만 북부 갈석산 역시 진(秦)·한(漢) 당시의 갈석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唐(당) 시기 연(燕)의 위치 이동

갈석을 경계로 삼았던 전국시대 연(燕)의 위치는 唐(당) 시기인 서기 730년(開元十八年)에 유주(幽州) 3현을 분리해, 연(燕)의 수도였던 계(薊)와 이후 연에 속했던 어양(漁陽)을 설치하면서 유주(현 북경일대)로 이동된다. 이렇게 연(燕)에 속했던 계(薊)와 어양(漁陽)의 위치가 유주(幽州)로 이동되던 당(唐)시기에 기록된 『史記正義』에 의하면 당시 연(燕)의 경계 지표인 갈석이 연(燕)의 '서북쪽'에 있다고 기록돼 있다.

『舊唐書』 卷三十九 志第十九

“薊州：開元十八年，分幽州之三縣置薊州。天寶元年，改爲漁陽郡，乾元元年，復爲薊州。”(계주：개원18년(730년)에 유주의 세 현을 분리해 설치했다. 천보원년(742년)에 어양군으로 고쳤다가, 건원원년(758년)에 다시 계주가 되었다.)

『史記』 卷一百二十九

“夫燕亦勃碣之間(正義勃海，碣石在西北)一都會也。”(무릇 연나라는 발갈사이(정의: 발은 발해이며, 갈석은 서북쪽에 있다)에 끼어 있는 한 도회지다.)

위 기록대로,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북경으로 비정하는 연(燕)의 위치는 원래 갈석산이 있던 황하 인근의 연(燕)이 아니라, 당(唐) 시기(730년)에 유주(幽州) 3현을 분리해 연(燕)의 수도였던 계(薊)와 이후 연에 속했던 어양(漁陽)을 설치하고 얼마 후 다시 계(薊)로 바꾸면서(758년) 위치가 북쪽으로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연(燕)의 위치가 이주 되던 당(唐)시기에 기록된 『사기정의(史記正義)』를 보면, 연의 경계 지표인 갈석이 연(燕)의 ‘서북쪽’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730년 유주로 이주된 연(燕, 북경)을 기준으로 해서는 서북쪽 지역에서 갈석산으로 비정되는 곳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북경 서북쪽(上谷)으로 비정되는 장가구시 인근은 갈석이 있다는 황하(河)나 바다(海)와 관련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북경 지역(과거 유주)을 730년 이전 연(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현재 갈석으로 유력하게 논의되는 발해만 북부 진황도시 인근의 갈석산들이 현재 연(북경, 이주된 燕)의 서북이 아닌 동쪽에 있기 때문에 역시 『史記正義』의 기록(碣石在西北)과 맞지 않으며, 이는 현재의 발해만 북부가 8세기 연(燕)의 이주가 있기 전의 갈석, 갈석이 있었다는 진(秦)장성, 진장성의 종점인 요동과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갈석산과 관련된 표지인 황하, 고대 발해(勃海), 진장성(秦長城), 요동(遼東) 등의 위치를 통해 현재 한반도와 발해만 북부에 비정되고 있는 갈석산설들의 문제점에 대해 원전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진(秦)이 쌓은 장성(長城)이 시작는 곳에 있다는 갈석산은 그 위치를 기록한 당대(唐代) 사서(史書) 간 내용이 불일치하고, 진(秦) 당시 갈석산과 관련된 지명들이 한반도와 맞지 않으며, 진(秦)장성의 동단, 즉 갈석산이 있

던 요동(遼東)이 현재와 달리 중원 내지에 있었고, 연(燕)나라의 경계였던 발해와 갈석(勃碣) 중 하나였던 발해 역시 현재와 달리 중원 내륙(하북성 남부)에 있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진(秦)이 내몽고자치구 서남부의 황하 북쪽에 장성을 쌓을 당시 진(秦)의 북쪽에는 ‘흉노’ 뿐 아니라 흉노 동쪽의 강한 ‘동호(東胡)’, 그리고 상곡(上谷, 현 하북성)에서 흉노와 접경했던 ‘에맥조선(穢貊朝鮮)’이 건재하였다. 따라서, 당시 진(秦)이 현 내몽고자치구 서남부(호화화특 인근)에서 발해만까지 이들을 모두 물리치고 단기간 내에 수천리 장성을 완성시켜 한 반도나 발해만까지 진출했다는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진(秦)의 동쪽 끝이었다는 요동 역시 발해만북부나 한반도에 있을 수 없음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현재 연(燕)나라 중심지로 비정되는 북경(北京) 지역은 당(唐) 개원 18년(開元十八年, 730년)에 유주(幽州)로 이주 된 이후의 연(燕)이기 때문에 『사기정의(史記正義)』 기록상의 갈석산 위치와 맞지 않으며, 이는 현재의 북경(이주된 燕)을 기준으로 갈석산과 요동을 찾으면 안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연구자는 갈석산이 있었다는 진(秦)장성의 동단과 요동이 현재의 한반도나 발해만 북쪽에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관점과 상당부분 의견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련된 추가적 연구 성과가 쌓여 그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한반도와 발해만 북부를 최초 갈석산이 있던 곳으로 비정하고 있는 중국 학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학계에서 본 주제와 관련된 연구와 토론이 폭넓게 진행되어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논문은 2023년 11월 10일에 접수되어,
2023년 11월 27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12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23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참고문헌】

『舊唐書』 『呂氏春秋』 『遼史』 『史記』 『史記索隱』 『山海經』 『尚書』 『水經注』 『隋書』
『五禮通考』 『吳越春秋』 『越絕書』 『魏書』 『資治通鑑』 『戰國策』 『晉書』 『通典』
『漢書』 『淮南鴻烈解』 (四庫全書) 『後漢書』

공석구, 「秦 長城 東端인 樂浪郡 遂城縣의 위치문제」, 『한국고대사연구』 81, 2016,
221~262쪽.

김진경, 「갈석산(碣石山)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선도문화』 15, 2013,
323쪽.

오현수, 「古朝鮮의 形成과 變遷過程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
논문, 2013, 182쪽.

장우순;문치웅, 「고대 갈석산의 위치 연구」, 『고조선단군학』 38, 2018, 162쪽.

譚其驤(담기양)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二冊(1)(秦圖組), 中國地圖出版社, 1996.
史党社, 「戰國秦長城東北端走向及相關遺存辨析」, 『中國歷史地理論叢』 36(1), 2021,
p.142.

李殿福, 「東北境內燕, 秦長城考」, 『黑龍江文物叢刊』, 1982, 62쪽.

任乃宏, 「“碣石”新考」, 『文物春秋』 2, 河北 邯鄲, 邯鄲學院 趙文化研究中心, 2014,
pp.14~19.

張博泉, 「明刀”幣研究續說」, 『北方文物』 80, 2004, p.51.

黃盛璋, 「碣石考辨」, 『文史哲』 6, 1979, pp.34~35.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詞典網(<https://www.cidianwang.com>)

〈Abstract〉

Problems in estimating Jieshi-Mountain (碣石山)
in Pyongyang and northern Bohai Bay
- Centered on the location of the Bohai Sea and Liaodong
during the Qin and Han Dynasties -

Yi, Ki-hoon *

This study presents a review of the locations of ancient Bohai (勃海), Qin Great Wall (秦長城), and Liaodong (遼東), which are landmarks related to Jieshi-Mountain (碣石山), and the research pertaining to problems with the current estimation of the location of Jieshi-Mountain (碣石山) of Pyongyang (平壤) and northern Bohai Bay (渤海灣).

The research confirms by means of various original documents that Bohai (勃海), Qin Great Wall (秦長城), and Liaodong (遼東) were not in the same locations as they are today, but in the southern region of Hebei Province (河北省). It also proves that Jieshi-Mountain (碣石山) could not have been located in the current Korean Peninsula or northern Balhae Bay.

The original site of Jieshi-Mountain (碣石山), having been on the border of Gojoseon (古朝鮮), was in close proximity to the location of the Yan Dynasty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If Liaodong (遼東), the eastern end of the Great Wall built by Qin (秦) and the Bohai, the sea that Han (漢) (who succeeded Qin (秦)) had crossed to attack Gojoseon (古朝鮮), were located in Hebei Province (河北省), it follows that Jieshi-Mountain (碣石山) would also

* Ph.D. program, Archaeology as Interdisciplinary Science, Inha University

have been in China's Central Plains (中原) at the time of the Qin (秦)-Han (漢) Dynasty, and not around the current Bohai (渤海).

These findings present new standards for Gojoseon's (古朝鮮) territory, providing evidence of the error of the Korean Peninsula Hansijun's (漢四郡) theory that has prevailed since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a new perspective for Chinese academia who regard the Jieshi-Mountain (碣石山) in northern Bohai Bay (渤海灣) as the first Jieshi-Mountain (碣石山).

Keywords: Jieshi-Mountain (碣石山), Gojoseon (古朝鮮), Nakrang (樂浪), Bohai (渤海), Liaodong (遼東), Qin Great Wall (秦長城)